

〈21세기 농민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재조명〉

가족농 · 소농이 우리 농업 · 농촌을 지킨다



김준기 전 신구대 교수,
전 한국농업전문학교 초빙교수

1.오늘의화두

“과연 우리 농촌 농업,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 말은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면서 화자되어 온 화두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쌀 관세화 유예 협상안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국회비준이 되면서 “우리 농업 이제 끝장났다.” “우리 농촌 농민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하는 좌절과 절망에 찬 350만 우리농민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드높다.

2 농촌농업농민의 현실과 전망

그 동안 역대 정부가 펼친 농정의 기조는 농업의 근대화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농업의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어 온 것이다. 그와 같은 기조 위에 한국 농업의 특징인 미곡중심의 자급자족적 농업, 가족 노작적 소농구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었다. 그것도 산업화·근대화·공업화·도시화·경제성장정책의 일환으로 농정을 농업 근대화·과학화·농기계화·농기업화 정책을 그 골간으로 하여 전개하여 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농촌사회는 붕괴되고 공동화되었으며, 농업은 쇠퇴하고 농토는 물론 산천산하가 황폐화되고 있는데다가 농민은 노령화되고 농사지를 사람마저 없으니, 농촌 농업 농민의 장래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농촌농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어떠한가 농촌사회의 실제적인 현실은 어떠한가.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늘어났다고 하나 기껏 15정보 정도이고 전체 농경지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지 않은가 묵론 논밭은 또 그 얼마인가.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상품생산 농업 즉 상업농(商業農)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농민은 얼마나 되는가. 농가의 빛은 자꾸만 산더미처럼 늘어만 가는데...

농가소득이 도시의 근로자 소득의 73% 수준으로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해 무엇하랴.

농촌에 어디 학교나 보건의로, 문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는가? 하키야 농촌마을은 관광지 유락지화 하고, 농촌의 산하와 자연환경은 공해와 쓰레기로 뒤덮이고 그도가 더 심해져 가고 있으니 어디 살만한 곳인가?

거기다가 농촌에 전통문화와 마을주민의 공동체의식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두레, 품앗이니 하는 농촌농민의 협동노동과 농작업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 않는가. 붕괴되고 소멸 된지 오래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이런 상태로 가다간 농촌 농업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외적인 농업환경이 급속도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인데 말이다.

1980년부터 불어 닥친 농산물시장개방 압력은 90년대 중반부터 UR/WTO-DDA, IMF, FTA 등으로 오늘의 한국

농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초국적 국제독점자본주의 체제에 완전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된 마당에 국제농산물시장과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국제시장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들 아우성들이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마지막 보루였던 쌀마저 수입 개방되고 만 오늘 현실이 암담할 뿐이다.

흔히들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첨단농업이나 디지털농업이나 하며 지식 정보화의 시대 살아가기 위한 지식농업을 이야기하고 벤처와 브랜드화를 내세우지만 과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과 세계 유수한 초국적 곡물자본(회사)과의 시장 및 정보독점경쟁에서 그 격차를 줄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조건에서 전망이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있는가?

3. 앞으로의 한국농업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농촌, 과연 살만한 곳이 될까?” “앞으로 농사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농민의 살림살이 어떻게 될까? 글썄 나이지고 행복해 질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정부와 농정당국은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10개년 농촌 살리기” 정책과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일시적 단기적 처방에 지나지 않을 뿐 근본적인 처방이거나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흡하다. 쌀 협상 후속대책 역시 쌀 관세 유예화에 따른 대중요법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념의 정립

농업 Agriculture 은 원래 어원이 “땅을 일구고 땅 갈기”라는 의미이다. 화폐경제사회로 이전되면서 농업도 시장을 통한 농산물교환 즉 상품 생산적 농업으로 변천되고 직업화되면서 농업이 Agri-business로 의미가 바뀌었으며,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 즉 Agri-industry(농

산업)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탈산업화 탈근대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농업만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 생산이라는 특징이 강조되면서 농업의 비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농업을 하나의 독립된 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Agriculture로서가 아니라 **Agri-Culture(흙(땅)의 문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나. 21세기 새로운 가치판이 대두

21세기 지구촌의 전 인류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농업철학에 관한 것이다.

먼저, 그 하나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이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身土一體, 身土合一)되고 공생공존하며 상호 조화(調和)하는 상생농업론(相生農業論)이며,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땅을 수탈하는 농업의 기계화와 합성화학 농법 등 농업의 공업화를 거부하고 물질 순환적 신진대사에 의존하는 유기 자연농법인 원시반본(原始返本)적 자연과 인간을 함께 살리는 생명농업론(生命農業論)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돈과 물질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로 공생공존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해 가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미래 사회상(社會相)이다.

오늘날 사회가 돈이 중심이 되고 돈벌이에만 집착되어 있는 상인적 경제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사회라면, 전 인류가 지향하는 미래 사회는 따뜻한 인간의 정이 넘치고 사람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이 강조되는 복지주의 사회”인 것이다. 그러한 세상으

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전 인류의 소망이며 “경제주의 시각에서 인간 복지주의 시각으로의 전환” 되는 그러한 사회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21세기 전 세계적 흐름이다.

남과 북이 하나되어 민족농업을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도 또한 우리 민족 모두의 소망이며 남북 해외 동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참살길인 것이다.

4. 소규모 가족농업(전통농업)만이 내일의 희망

현 시점에서 왜 소농, 소규모 가족농업이나? 하고 반문을 하며 냉소를 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60여 년간 한국 농업이 지향해온 정책의 기초와 사회를 지배해온 논리가 근대화·산업화·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경제성장주의였으니까.

거기에 한국농업의 구조적 특징인 가족 노작적 영세소농으로서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자유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으며 농업을 근대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을 규모화하고 기업화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강조되어 온 것이 주류 관변 학계와 정부 정책당국자들의 지배적인 논리였다.

더욱이 한국의 농업은 고도경제 압축성장을 해온 과정에 저노임의 기초인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저노임 노동자의 공급원인 이농·탈농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서 가족 노작적 소농은 몰락하고 농촌 농업도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희생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농 경영을 보호하고 육성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농업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주의 정책의 뒀안길에서 희생되고 몰락해온 가족소농 그대로 방기해도 한국의 미래농업 상관없는 것인가.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시도하고 있는 6정보 규모의 쌀전업농으로 국제곡물메이저와 미국의 일반(평균) 농가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가? 더욱

이 현 시점에 강조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사회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살리고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연 농업의 규모화와 기업농으로 가능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앞서 살펴본 21세기 농촌 농업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농은 바로 농촌 농업의 미래상이며 희망인 것이다.

가. 가족적 소농의 특징과 유리성

먼저 소농 즉 소규모 농장은 1-2정보(우리나라의 평균 호당경지면적 약 15정보) 임의 좁은 소규모 농토에서, 가족 노동력을 위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자급농업을 지속하며, 작물과 가족에 대한 애정과 농사일 자체에 정감과 보람을 가지고, 농사꾼으로서 흙냄새를 맡으며 인생의 이름다운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나가는 그야말로 땅에 뿌리박은 영속적인 농사를 영위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이 기업의 이윤과 순수익을 목표로 대량생산 대량판매를 하며 생산비를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화와 합성화학(비료와 농약 등) 농법을 도입하는 자본집약적 공업화 농업과 단작 중심의 윤작식 농업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하여, 전통적인 소농은 다종다양한 작목을 채택하여 가족의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토지 집약적으로 영농을 하는 복합농업이며 가족의 생존과 활용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양질의 안정적 자연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자연 순환적 유기 생태 환경 농업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가족적 소농은 노동의 정밀성과 강인성을 바탕으로 가족노동 및 토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며 주위의 유기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땅의 지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토양을 유위 면적지 보존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여 소농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영구적인 경작 방식을 취하는 농업이다. 그리고 소농은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능을 넘어서 작은 토지에 여러 작목을 선택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드려 농사를 지으며 제한된 농지에서 얼마나 많은 식구를 부양하느냐 하는 단위 면적 당 수량을 높이는

것이 농사의 주목적이다.

실제적으로 대규모 기계화 영농에 비하여 단위 당 생산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에 있어서 복합생산 되는 총 생산량도 단작 보다 훨씬 높다.

나. 소농의 사회 공익적 가치와 유리성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진 소농은 단순한 농업(먹거리 생산)이라는 가치이상으로 사회경제 교육문화 및 자연생태적 측면에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 인공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옹호·창출하고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유리성을 발견하게 한다.

첫째, 농산물 생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땅을 사랑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고,

둘째, 자급자족적 집약농경은 중국에는 주곡자급의 주역이며 초석이 되며,

셋째, 작은 땅에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노동(두레, 품앗이 등)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사회 유지 재현의 핵심기반이다.

넷째, 영구적인 농사 경험과 연구로 그 고장의 기후조건과 자연풍토 및 생태계에 적합한 향토농업의 창출을 하고 향토 자생 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다섯째, 고장의 전통 문화를 보전 계승발전하고 농촌사회 민주주의 실현의 보루

여섯째, 노인 노동력을 최대한 가용할 수 있고, 노인건강 복지를 증진에 기여

일곱째, 그 지역소비자와의 잦은 접촉으로 상호 신뢰구축은 물론 생산자와 활용소비자와의 일체감을 기초로 한 직거래 활동이 용이한 점 등...

다. 소농 협동(협업)화의 길

소농은 대농규모경영에 비하여 시장거래 및 유통에 있어서 거래 교섭력이 약하고 시장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들이 대농 규모화가 가고

있는 효과를 어떻게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가족 소농이 가지고 있는 유리성과 강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대농경영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발휘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농간의 협동조직과 공동체경영 및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협동조직의 형태와 운영 방식은 지역의 여건과 풍토 및 지역 소농들의 자주 자발적 의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조직 운영될 수 있다. 마을 또는 동일한 생활 유대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가 결합하여 토지, 노동, 자본, 농기계와 시설, 기술 등의 이용이나 생산, 이용, 가공, 판매활동 등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직화(조합 또는 협동경영)의 길을 모색한다.

그리고 협동체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팔찌 견지하고 지켜나 가야 할 원칙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조직전체도 발전하는 그야말로 너 좋고 나 좋은 방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5.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소농만이 우리 농업의 살길이며 우리 농촌과 지구촌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 세계화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대안은 유기 자연 순환적 생태농업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소농을 살리는 길이다. 소농 살리기는 나라의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존의 측면의 의의를 뛰어 넘어서 자연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삶을 향유케 하는 21세기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며 전 지구적 전 인류적 요청이다.

지금이야말로 “소농의 바른 자리 매김을 해야 한다. 농촌에서 소농이 토착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소농을 중심으로 지역 향토산업을 배치하고 대규모 농업의 기업농방향의 농촌 농업 구조개선책을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할 때인 것이다.